(문 닫히는 소리)

피: 안녕하세요.

프: 반가워요, 피터 팬. 난 프로이트라고 해요.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.

피: (기뻐하며) 맞아요! 정말 힘들었어요! 하지만 저는 하늘을 날아 여기까지 왔죠. 엄청나게 많은 숲과 마을을 지나서 왔어요!

프: (밝은 목소리로)하늘을 날아서 왔다니, 정말 대단하네요! 저는 하늘을 날 수 없는데.

피: 선생님은 어른이니까요. 어른은 하늘을 날 수 없어요. (슬픈 목소리로) 그래서 웬디는 이제 날 수 없어요.

프: 이런. 웬디가 어른이 되었나요?

피: 네. 웬디도 어른이 되었고 웬디의 딸도 어른이 되었어요.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.

프: 피터는 왜 어른이 되는 게 마음에 안 들까요?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건 당연할지도 모르잖아요.

피: (큰 목소리로)하지만 전 어른이 싫어요!

프: 왜요?

피: 어른들은 다 나빠요! 엄마도 나빠요. 필요는 하지만요. 전 어른이 싫으니까 어른이 되지 않을거예요!

프: 어쩌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?

피: 네버랜드에 오는 아이들은 모두 길을 잃은 아이들이에요. 부모를 떠나서 온 아이들이죠. 아이들이 걷고 뛰고 하다 보면 엄마를 잠시 떠나게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? 저도 엄마를 떠났었어요. 그리고 몇 달 뒤 집으로 돌아갔죠. 하지만 어땠는지 알아요? (화난 목소리로) 창문이 잠겨있었어요! 그리고 엄마 옆에는 다른 아이가 있었어요! 엄마는 날 버린 거예요!

프: 그랬군요. 정말 슬펐겠어요. 화도 나고.

피: 맞아요. 너무 화가 났었어요. 어른들은 믿을 수 없어요.

프: 하지만 웬디는 무사히 집에 돌아갔잖아요.

피: 네. 웬디의 어머니가 창문을 열어놓고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. 웬디네 아버지는 아이들을 방치한 자기 잘못이라고 애들이 돌아올때까지 개집에서 지내기까지 했어요.

프: 피터는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?

피: 음....뭔가 내 엄마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.

프: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나요?

피: 웬디의 엄마도 창문을 열어두었고, 웬디도 나중에 제가 웬디의 딸을 네버랜드로 데려갔을 때 창문을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었어요. 모든 어른이 다 창문을 닫아두는 건 아닌가 봐요.

프: 맞아요. 피터의 어머니는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모든 어른이 그런 건 아닙니다. 충분히 아이들을 믿고 기다려주는 어른들도 있어요. 어쩌면 그런 어른들이 더 많을 수도 있죠.

피: (머뭇거리며)하지만…. 저는 어른이 싫은걸요! 제가 어른이 되고 싶지도, 제 친구들이 어른이 되는 걸 보고 싶지도 않아요!

프: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. 피터가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으면서 느낀 충격과 분노가 무의식 속에 잠재된 것처럼 보여요. 하지만 피터, 과거의 괴로운 경험을 직면할 때 사람은 성장할 수 있어요. 그리고 결국 그 성장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거예요.

피: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…….

: 어른이 다 나쁜 존재라면 어른이 된 웬디도 나쁜 존재인가요?

피: 아뇨! 웬디는 나쁘지 않아요!

프: 그럼요. 웬디는 좋은 어른이 되었어요. 그리고 똑같이 어른이 된 웬디의 동생들도 분명 좋은 어른이 되었을 거예요.

피: 하지만 어른들은 아이들처럼 날지 못해요!

프: 하지만 그들이 불행해 보이나요? 웬디를 생각해봐요.

피: 아뇨, 행복해 보였어요. 웬디는 딸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.

프: 아니면 날지 못하는 웬디가 못나 보였나요?

피: 아니요, 웬디는 여전히 예뻤어요.

프: 그래요.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서 어릴 적의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죠. 하지만 순수함이 존재의 전부는 아니잖아요? 어른들은 자라면서 괴로운 일들을 겪지만, 그 경험을 기반으로 성숙해져요. 이 과정을 통해 어른들도 어린아이 못지않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어요. 피터는 어떻게 생각해요?

피: 아직 잘 모르겠어요. 하지만 어른이 된 제 친구들이 악마처럼 보이거나 무능해 보이지 않다는 건 확실해요.

프: 훌륭해요. 그 반응으로도 충분해요. 피터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.

피:(기쁜 목소리로)더 멋있어지고 있다는 말이죠?

프: 물론이죠!(잠시 뜸을 들이다가) 피터, 만약 피터가 어른이 된다면 어떤 모습이 되고 싶나요?

피:(불만스러운 목소리로) 전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데요.

프: 만약에 가능하다면요. 아직도 어른은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로 경멸스럽나요?

피: 음…….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. 저는…. 지금처럼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.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길 잃은 아이들을 데리고 살 거예요!

프: 멋지네요! 피터에게 '어른'이라는 존재가 처음보다는 편한 존재가 된 것 같아 기쁘네요.(잠시 뜸을 들이고) 시간이 다 되어 슬슬 마쳐야겠네요. 오늘 상담을 하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?

피: 글쎄요, 사실 아직 전 어른이 싫어요. 하지만 세상에는 괜찮은 어른도 있는 것 같아요. 어른인 웬디는 좋은 어른이니까요. 저는 어른이 될 생각이 없지만, 웬디와 다른 친구들이 어른이 되는 게 그렇게 절망적인 일인 것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

프: 그렇군요. 오늘 여기까지 오고 이야기 나누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요. 다음 회기 때 봐요.

피: 네! 다음에 봐요!

(문 닫히는 소리)